

5급 공채 신입관리자과정 입교

-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직군/직무분야별
맞춤형 분리 교육 실시

- 공직가치 체득을 위한 합숙교육(3주), 모범선배(20명)
멘토링 시스템 운영 등

1. 5급 공채 합격자 363명이 5월 8일 신입관리자과정 입교식을 갖고 새로운 미래사회를 이끌 국가인재로 거듭난다.

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(원장 옥동석)은 5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5급 공채 신입관리자과정 교육과정을 진행한다.

2. 이번 신입관리자과정은 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공직 가치 확립, 직무 전문성, 공직 리더십과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역량 등 다양한 정책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맞춤형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.

(1) 먼저, 전문성과 교육효과 제고 차원에서 직무분야에 적합한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며, 행정직군(286명)은 진천본원에서, 기술직군(77명)은 과천본원에서 이원체제로 운영된다.

* 민원·공공서비스디자인(행정관리), 경제정책·국제외교(재경통상), 정보기술·지식재산(산업기술)

(2)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및 공직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입교 직후 3주 동안은 참여·체험형 학습방식으로 합숙교육이 진행된다.

* 도덕적 딜레마상황에서 역할극 연기, 공직자상 영화만들기, 공직가치송 만들기, 공직비전 설계 및 다짐 등

- (3)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각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미래 아젠다 중심 콘텐츠 교육을 확대한다.
-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술혁신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대응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다.
- (4) 타의 귀감이 되는 선배 공무원이 동참하여 올바른 공직자로서 역할과 자세 등을 직접 전달하는 지도선배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한다.
- 각 부처에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은 선배 공무원(20명)이 합숙기간 동안 FT(퍼실리테이터)로 참여하여 교육생들의 학습활동 지도, 평가 및 피드백, 공직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는 등의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.
- (5) 자율적 계획을 통한 자기주도형 학습체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교육생 평가 및 교육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생관리를 강화하였다.
- 정규 교과 외에도 교육기간 동안 스스로 학습하여 한자 공인 2급(2,300자)과 제2외국어 초급 수준의 어학등급 취득 및 독서과제(감상문 3편)를 수행해야 한다.
 - 교육생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태도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감점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평가에서 종합 60점 미만은 미수로 처리된다.

3. 김동국 인사혁신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“시대가 바뀌어도 공직사회의 변하지 않는 가치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정신을 항상 갖춰 달라.” 고 강조하면서 “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통합적 사고,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과 아이디어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어넣는 공무원으로 성장해 줄 것” 을 주문했다.

4. 옥동석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“전문성을 제고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위주 교육을 준비” 했다고 하며, “이번 교육을 통해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기 바라며,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유연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열려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” 를 당부했다.